

5·18 발포 ‘자위권 발동’ 거짓 드러나나

전일빌딩 10층 헬기 총탄 흔적 계획된 발포 가능성

헬기·공수부대 5월21일 비슷한 시각 집단발포 한 듯

5·18재단 “계엄군 주장 억지…발포명령자 규명해야”

“전일빌딩 10층 건물 내부에서 발견된 100여개 이상의 총탄 흔적은 5·18당시 금남로에 유사한 높이의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의 흔적이라고 보는 게 맞다.”

광주시의 요청을 받고 광주시 동구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현장 조사를 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안전실장이 최근 광주일보와 인터넷에서 한 발언에 대해 5·18기념재단 측은 21일 “상부 명령 없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자위권 발동’이라는 군(軍) 당국의 억지 논리가 깨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군 관계자들은 그동안 국회 광주청문회, 검찰 수사 등에서 “수만명의 시민이 물려든데다 시민들이 장갑차마저 탈취해 장병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발포가 이뤄진 것”이라며 “계획된 명령에 따른 집단 발포는 아니다”는 주장을 해왔다. 지난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도청에서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동구청 상황일지) 시작된 공수부대의 ‘엎드려 쏘’ 집단 발포에 대해 당시 11공수여단장 최웅 준장, 그로부터 작전권을 넘겨받은 선임 대대장 안부웅 중령(61대대) 등 군 관계자 모두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주장을 펴온 것이다.

그러나 국내 총기 및 탄약 감식 관련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는 김 실장의 발언과 ‘21일 오후 1~3시 사이 호남동성당 등 금남로 주변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5·18 직후 조비오 신부, 미국인 목사 피터슨 씨, 수십명에 달하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자위권 발동’이라는 군의 논리는 국가수사의 공식 감정서가 나오는 순간 깨질 공산이 크다.

지상에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와 거의 동시에 하늘에서도 헬기에 의한 무차별 사격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군의

발포는 상부 명령에 따른 사전 계획된 집단 발포라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과수 감정서에 헬기 기총소사 내지 헬기 사격이 공식적으로 담기다면, 80년 5월21일 낮 집단발포가 단순 진압이 아닌 ‘계획된 학살’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발포 명령자 규명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도 5·18 단체에서는 터져나오고 있다.

5·18 당시 계엄군 헬기 기총소사와 관련, 1980년 5·18 직후 전투병과교육사령부에 의해 작성돼 지난 1989년 국방부가 국회 광중특위에 제출한 ‘광중소요사태 분석 교훈집’의 항공 관련부분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시위진압에 동원된 헬기가 무장을 했고 다량의 탄약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됐다.

작전기간 중(7일간) 탄약을 1인당 평균 59발 소모했다는 교훈집 기록이나 항공대에 20mm 발칸포 1500발이 지급됐다는 추정작전 상황일지 등 군 기록을 통해 헬기 기총사격 사실이 입증됐으나 명확한 ‘물증’이 없어 여태 부인돼왔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5·18 당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광주에는 항공 제1여단 31 항공단과 61항공단 군인 108명이 500MD 12대, UH-1H 11대 등 모두 다섯 기종, 31대의 헬기가 동원된 것으로 돼 있다. 운항 시간은 827시간으로 적고 있다.

한편, 5·18 집단 발포 직전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 발동 결정 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은 일부 언론 보도와, 상부 명령에 따른 집단발포라는 5·18 피해자들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5공 핵심 관계자는 “모두 거짓이다. 상부 명령은 없었고 그런 회의조차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금남로 1-1번지 전일빌딩 10층 내부 기둥과 천장, 바닥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들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헬기 사격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을 했다. 아래는 5·18 직후 전일빌딩 유리창이 계엄군의 총탄에 의해 산산이 부서진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일빌딩 탄흔 보존 TF팀 내달 가동

광주시, 10층 원형 보존·1층 전시공간 마련 등 논의

광주 전일빌딩에서 1980년 5·18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된 가운데 탄흔 보존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팀이 꾸려진다. 또 정밀안전진단 후 리모델링이 정상 진행될 경우 건물 외벽과 내부 기둥 모두 원형 그대로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일빌딩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는 전날 2차 전체 회의를 열고,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탄흔 보존 TF를 구성해 1월부터 본격 가동기로 했다. TF에는 시와 도시공사, 시의회, 5·18기념재단, 5월 단체 관계자 등 10명 안팎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헬기 사격 탄흔이 집중 발견된 10층 공간을 원형 보존하는 방안, 10층 탄흔 일부와 3·8·9층 외벽에서 발견된 탄흔 그리고 곳곳에서 총탄에 맞아 떨어져나간 구조물들을 한 데 모아 1층 열린공간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시공간’은 지난 2005년 독일 베를린 시의 무상 기증으로 서울 정계천에 조성된 베를린장벽(길이 3.6m, 높이 3.5m, 두께 0.4m)에 착안한 아이디어다. 시는 당초 건물 3층에 총탄 흔적 전시실을 만들 예정이었으나 10층에서 헬기 사격 탄흔이 130여

개나 발견되면서 이를 10층으로 통합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형 그대로 보존’을 리모델링의 기본 방침으로 확정했다.

한편, 시는 현재 지하 1층~지상 10층인 전일빌딩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핵심지원시설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 130억원, 시비 290억원 등 4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전일빌딩은 1968년 7층 건물로 준공된 뒤 4차례 증·개축을 거쳐 현재의 10층 규모를 갖추고 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납품 비리’ 김용환 전 비서관 구속 기소

광주시 납품 계약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구속된 김용환(57) 전 광주시장 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돈을 받고 광주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광주시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회계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해 브로커 박모 씨와 김모씨가 지정한 16개 업체와 40건의 관급 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로(직권

납품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또 그 대가로 브로커 2명으로부터 6차례에 걸쳐 각각 3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에 앞서 구속기소된 브로커들이 16개 업체에서 1억6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 이 가운데 김씨에게 얼마나 건네줬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시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 납품 계약 권한이 있다고 보고 직권납품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검찰, 음주운전 7회 적발자 차량 압수

“선생님,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여서 역주행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리시죠.”

지난 10월4일 전남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적발된 A(59)씨는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7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A씨는 지난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누범 기간 중에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경찰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A씨를 구속한 뒤 차량을 압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음주 교통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 15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26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상습음주 운전자인 A씨의 차량 압수한 뒤 몰수 조치했다. B(46)씨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기소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던 중 지난 7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인이 만취 상태인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한 60대 남성은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60대 남성은 사고가 나자 운전자에게 도주르까지 달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 상습 음주운전자나 사안이 중한 음주 교통사고 사범을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의붓딸 성추행·아내 협박

50대 징역 2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초등학교생인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협박)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에 순천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의붓딸인 A(당시 12세)양 곁에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바람 피운다며 여친 집 침입 고양이 훔친 20대 경찰서형

○…“바람을 피운다”며 여친 친구 집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해 고양이 2마리를 훔친 20대 가 경찰서형.

○21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조모(27)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에 여친 친구인 박모(26)씨가 연락이 되지 않자 다른 남자가 생긴 걸로 의심, 광주시 서구 박씨의 오피스텔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

고 무단침입했으며, 같은 날 오후 2시에 박씨가 출근한 사이 60만원 상당의 러시안블루 고양이 2마리를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여친 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서 “고양이는 4개월 전 내가 선물한 것으로 이별통보를 한 뒤 되가져간 것”이라고 해명.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2017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편입생 추가모집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6. **12. 31**(토) ~ 2017. **1. 4**(수)
• 전 형 일 : 2017. 1. 12(목)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 집 인 원	
		정원내	정 원 외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9**(월) ~ **18**(수)
• 전 형 일 : 2017. 1. 20(금)



만물이 있는 데에서 · 만물을 주는 대학
광 신 대 학 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7. 2. 8(수)오후 3시
	박사	목회학과(D.Min.)	○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2017. 2. 8(수) 오전 10시
		유아교육학과(M.Ed.)	○	2017. 2. 8(수)오후 3시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2017. 2. 8(수) 오후 3시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	
		음악학과(M.A.)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 자격
2학년	○명 (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7. **1. 24**(화) ~ **2. 6**(월)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7. 2. 8(수) 오후 2시 30분